

2011 박성호의 춤탈극

신화가 된 사랑

# 夢 [몽]



▪주최 : 박성호무용단 ▪주관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특별후원 : BGF 부산문화재단 ▪후원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2011. 9.18.(일) 오후 6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공연문의: 051) 663-4964 / 010-5530-4102

본 공연은 2011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신화가 된 사랑

# 夢 [몽]

▣박성호무용단: 부산시 남구 대연동 동일스위트 415호  
▣공연문의: 051)663-4964 / Mobile: 010-5530-4102



## 박 성 호

현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겸임교수  
 경성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2010 부산무용제 대상·연기상·안무상 수상  
 2010 전국무용제 금상 및 최우수연기상 수상  
 부산 KBS 무용 풍물 창작 부문 금상 수상  
 제 33회 전국 전통예술 국악경연 대회 무용부문 1등 문화부 장관상  
 2002-2003년도 부산시 지원 영국 해외연수  
 THE COLLEGE PERFORMANCE WORKSHOP코스 수료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동래 한양무 전수자

## PROFILE

신화화된 사랑



[동]

## 인사말

여름의 기운이 한 자락 남아있지만  
 어느새 황금빛 들녘의 아름다움이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저희 박성호무용단의 모든 스태프진과 무용수들이  
 한여름동안 정성스레 한방울 한방울의 땀을 닦아가며  
 열심히 준비한 <춤극-신화가 된 사랑>을 풍성한  
 이 계절에 선보이게 되어 더욱더 기쁩니다.  
 본 공연은 한국의 전통공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민속 탈춤이 가진 민중적 성향을  
 공민왕이라는 높은 계층을 등장인물화 시킴으로써  
 양반과 민중의 삶을 해학적으로 풀어나가는 한정된  
 소서사시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대서사시적인 내용으로  
 폭을 확대하여 좀 더 고급화된 민족적 정서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춤탈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한국의 국가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한  
 박성호무용단의 야심찬 장기 프로젝트로,  
 흔히 드라마나 영화 등 대중문화에 의해서만 접하던 역사적 사실을  
 새로운 예술 장르인 춤탈극을 통해 다양한 몸짓과  
 극대화된 말의 효과로 색다른 예술적 경험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함께 자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한국 무용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夢

[몽]

## 작품의 특징

본 작품은 탈을 쓰고 추는 춤탈극이다. 하지만 전통연희에서 보여지는 탈춤의 형식을 변용하여, 서사적 줄거리를 대사 위주로 풀어내지 않고 그 흐름을 춤에 중점을 두어 표현해내며 필요한 장면에서는 간단한 대사를 넣어서 극의 이해를 돕기도 한다.

공연의 맥을 살려나가기 위해 음악은 라이브 연주로 이루어지며 주제가 되는 멜로디의 반복을 통해 노국공주와 공민왕의 '신화가 된 사랑-몽(夢)'이라는 주제를 살려낸다.

악사들의 배치는 다음과 같다. 무대 상수 오른쪽부터 신디사이즈, 소리, 구름, 대금, 피리, 태평소, 징, 북, 장고, 심벌즈, 해금 순으로 배치한다. 신디사이즈와 북이 중심을 잡고 여러 악기들이 극의 분위기에 맞게 적절하게 결합한다. 궁중 연희 장면에서는 기존의 곡을 사용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무용수는 역할에 맞는 탈을 쓰고 등장한다. 각각의 탈에는 기존의 탈극처럼 성격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으며 조명과 춤의 동작에 따라 그 모습이 여러 가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오히려 감정이나 성격을 배제한 형태로 제작한다.

## 작품의 의도

내가 어찌 공민왕이 노국공주에게 하듯이 할 것이냐

- 《세종실록》 세종 2년 12월 27일

공민왕,  
 반원의 깃발을 높이 든 개혁군주, 적국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 운명을 건 사랑을 한 남자,  
 그 여인의 죽음 이후 가늘 길 없는 슬픔으로 자신을 절망의 나락으로 이끌어 결국 어이  
 없이 살해당하고 말았던 제왕.  
 조선은 공민왕을 병적으로 아내의 죽음에 집착해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고려의 패망을 자초했던 왕으로 폄하하고자 했으나,  
 노국공주의 운명을 뛰어넘은 사랑만은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후세에 길이 남겨두고 있다.  
 후대에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는 공민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본 작품 '낙화 - 신화가 된 사랑' 은 통해 12살, 원에 끌려가 두 번이나 왕권 도전에 실패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순주역야만 했던 그의 절망과 고려에 대한 사랑,  
 정략으로 만난 적국의 공주를 영혼을 다해 사랑하게 된 그의 운명의 행보와  
 반원의 깃발을 높이 내걸고 추진했던 칼날같은 군주로서의 결단력,  
 그러나 아내의 죽음을 넘여가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버린 그의 비극적 생을  
 재조명함으로써 개혁과 사랑을 함께 했던 700년 전의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보고자 한다.



2011 박성호의 춤담극

신화가 된 사랑

# 夢

[몽]

## 프롤로그 왕, 시해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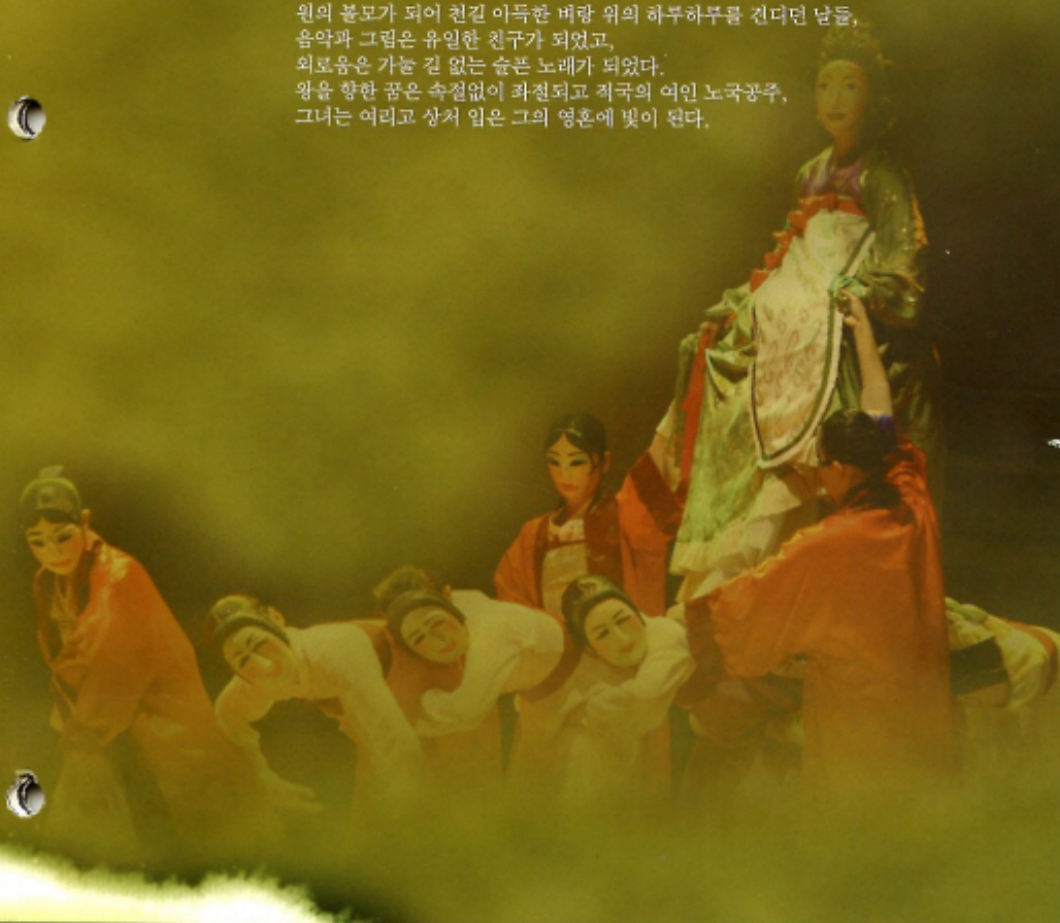
공민왕 23년

개혁과 사랑, 광기와 슬픔의 긴 날들을 비극으로 마감한 왕의 죽음  
충애했던 군사들의 칼날 끝에 그는 서늘한 햇빛 옴음으로 스러진다.

## 제 1장 왕을 향한 꿈, 공주를 만나다

"사랑이여, 목숨이여!  
벼랑 끝에서 나는 그대를 만나 천 년의 기나긴 사랑을 시작한다"

원의 불모가 되어 천길 이득한 벼랑 위의 하루하루를 견디던 날들,  
음악과 그림은 유일한 친구가 되었고,  
외로움은 가늘 길 없는 슬픈 노래가 되었다.  
왕을 향한 꿈은 숙절없이 좌절되고 적국의 여인 노국공주,  
그녀는 어리고 상처 입은 그의 영혼에 빛이 된다.



2011 박성호의 출발극

신화가 된 사랑

# 夢

[몽]

## 제 2장 왕의 길, 반원의 칼을 들다

장사름 매복시켜 두었다가 불의에 기침을 첩퇴로 내리치니  
철이 즉시 넘어져 죽었고 권검은 피하여 달아나는 것을 쫓아가 죽이니  
피가 궁문에 낭자하였고.....칼날이 길에 가득하였다

- <고려사절요> 제 26권 공민왕 5년 5월

"나의 오랜 꿈이 이제 그 길을 연다.  
노국공주여! 그대와 함께 이 길을 갈 것이다"

왕이 되어 고려로 돌아온 그,  
반원의 칼을 높이 든다.  
연회를 베푸는 거짓 소식을 듣고 궁에 입궐한 기침 일당을 숙정하는  
공민왕의 치밀한 판단력과 과감한 결단력,  
새로운 희망은 시작되었다.

## 제 3장 속명의 사랑, 노국 공주

나라를 가지고 가정을 가지는데 배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내조의 꿈을 세운 이에 대해서는 더욱 잊을 수 없는 것이다.  
- <고려사> 후비열전

"그는 나의 운명,  
나를 죽이지 않고는 이 분을 넘지 못할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  
안동으로 파천을 떠나는 왕의 행렬,  
그러나 시련의 시기, 사람은 상하지 않고 오히려 깊어졌다.  
왕을 시해하려는 무리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서슬 퍼렇게 외치는 공주를 결국 넘어서지 못한다.  
공주는 왕을 지켜낸다.





[몽]

## 제 4장 사랑을 잃고 미쳐버리다

공주가 죽은 후에 여러 왕비를 받아들이는 했으나  
별궁에 두고 가까이하지 않았으며 밤낮으로 공주를 생각하여  
드디어 정신병이 생겼다

- 《고려사》 공민왕 21년

"운명의 잔인함이어!  
너를 잃고 나는 비로소 너를 내 안에 영원히 가두게 되는구나"

목숨처럼 사랑했던 노국공주를 잃었다.  
그토록 기다리던, 16년 만에 가진 아이를 품고 그녀는 떠났다.  
사랑의 상실은 잔혹한 운명의 선을 넘어 왕을 광기의 세계로 데려간다.  
고봉은 그의 정신을 빼앗아 공주의 영혼과 더불어 살게 하였다.  
이제 그는 공주와 하나가 되어 노래하고 춤춘다.

## 에필로그 신화가 된 사랑

쌍릉,

왕은 죽음을 넘어 사랑하는 이에게로 가는 영혼의 길을 내고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운 신화가 된다.

2011 박성호의 송달극

신화가 된 사랑

# 夢

[몽]

## 출연



어린공민왕 강모세



어린노국공주 윤은하



어린공민왕 허태성



어린노국공주 박수정



악비 최혜란



호위무사 김재용



종용/연무·연출 박성호



최민생/조연출 이동용



안주현



최지원



김보경



김영경



배지원



박민애



강보라



심소민

▶특별출연 및 무예지도: 민족무예기전문 부산지원



최광복, 신현주, 윤용희, 장남주

▶특별출연: 강모세, 윤은하, 허태성 (부산시립무용단)

## 음악



피아노 이민주



해리 나리



대금 김현일



타악 이우창



대본 이미연



말제작 이민주

## 스텝

▶안무/연출: 박성호 ▶대본: 이미연 ▶조연출: 이동용 ▶조명: 김영식 ▶기획: 이해정 ▶홍보: 이희준  
▶의상: 이수동뷰티의상실 ▶말제작: 이민주

## 연혁

### 주요 작품 안무

- 96. 8. 5 새암 춤회 정기공연 "인간이 죽어간다" 안무
- 97. 5. 4 민족춤제전 "남아 선후 그 이후" 안무
- 99. 8. 17 솔리스트 3인전 "고쳐 넘어 환희로" 안무
- 05. 7. 20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무용제 -나- 안무
- 06. 2. 28 부산 경성대학교 콘서트 홀 박성호의 창작 춤판 -심도- 안무
- 06. 11. 1 봉생병원 문화공연장 박성호의 전통 발표회
- 07. 7. 3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 부산무용제 -상- 안무
- 07. 11. 3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 박성호의 창작 춤판 -그 일그러진 상- 안무
- 08. 8. 16 민주공원 야외마당 찾아가는 문화활동 전통춤 발표
- 08. 8. 16 용두산 공원 야외상설무대 우리가락 우리마당 전통춤 발표
- 08. 10. 3 양산 삼랑문화계 야외공연장 무궁화예술단 정기전통발표회 안무
- 09. 1. 14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 박성호의 창작춤 점(點)-자취안무
- 09. 12. 27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 끈-낙화 안무
- 10. 7. 15 부산 문화회관 중극장 디아스포라-점 안무
- 10. 10. 23 광주 예술 문화회관 점-세상을 잇다

## 부산시민들의 피부 주치의 피브엔의원

### 부산사람들의 피부엔

### 역시 피부를 잘 아는 피브엔의원!

점빠기, 고독스, 여드름, 기미, 잡티,  
주근깨, 흉터 치료까지 후기가 강한 병원!



원장 도정화

### 진료과목안내

피부질환, 아토피, 점빠기, 기미, 주근깨, 잡티, 여드름, 모공, 흉터, 보톡스, 필러, 제모,  
비만, 사마귀, 비립종, 한관종, 체형관리, 탈모등

### 찾아오시는 길

부산진구 개금1동 171-83 하니로 약국빌딩 4층  
지하철 개금역 1번출구 전방 200미터내 위치

전화번호 : 051-892-0005 홈페이지 : [www.pvn.co.kr](http://www.pvn.co.kr)



lawmentor

변호사 이경우 법률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함원로 12 가제동 (보림타워(국민은행 빌딩) 1003호)

변호사 이 경 우

TEL: 051) 501-5388 / FAX: 051) 501-9178  
Mobile: 018-465-0528 / E-mail: [2wooya@hanmail.net](mailto:2wooya@hanmail.net)  
Facebook: [www.facebook.com/lawmentor](http://www.facebook.com/lawmentor)